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젊은이와 친구가 되는 방법

신 계 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2년 만에 대면강의가 시작되었다. 2년 학교에 다니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온 날이 열 번 남짓밖에 안 된다. 꽃 피는 춘삼월에 입학식을 하고 학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축제를 하는 등, 사람들이 통과의례를 치르듯 대학에서 행하는 모든 과정이 통으로 생략된 채 졸업을 하게 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2년 동안 학생들을 기다려 온 나는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을 하여 얼굴을 모두 가렸으나 학교에 왔다는 기쁜 표정은 가려지지 않는다. 친구 사귈 틈도 없었을 것이므로 출석을 부르면서 우리 반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소개해 주었더니 서로 박수로 환영한다. 서먹서먹했던 분위기도 금세 화기애애하게 바뀌는 순간이다. 강의를 먼저 해야 할까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해야 할까. 늘 하는 일이었는데도 갑자기 두서가 없어진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자. 이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무엇을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지 찾아야 한다. 그것이 취미가 되고 특기가 되고 직업이 되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평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은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 될 수 있다.

둘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열심히 매진하고 몰두해 보자. '맹자'(孟子)의 '고자 상'(告子上)에서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귀한 구절을 발견하였다. 혁추라는 사람은 바둑의 고수다. 혁추가 두 학생에게 바둑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한 학생은 바둑을 잘 배우기 위해 전심으로 바둑에만 전념하였다. 또 다른 한 학생은 바둑을 배우면서도 날아가는 새를 무엇으로 잡으면 잘 잡힐까를 궁리하였다. 그 두 사람이 이룬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쏟아 뜻한 바에 이르게 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을 갖는다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내 마음 안에 중심을 잡아 보자. 춘추전국시대 어느 연나라 사람이 조나라에 가면 걸음걸이가 너무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조나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조나라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 하지만 조나라 사람 걸음걸이도 배우지 못한 채 자기 본연의 걸음걸이마저도 잊어 버려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항상 내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하도록 하자. 중국 음식 중에 만한전석(滿漢全席)은 청나라 황실요리를 칭하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 요리와 한족 요리가 동시에 차려지는 복합 식단을 말하기도 한다. 만주족과 한족의 연회에 만주족 요리는 한족이, 한족 요리는 만주족이 만들게 되었는데, 청대의 문인이자 관원이었던 원매 선생은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만주족 요리는 만주족 사람이 잘 만들고, 한족요리는 한족 사람들이 잘 만들기 때문이다. 요리를 서로 바꾸어 만들면서 친목을 도모하기보다는 서로 잘하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2년간 대면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밖으로 튀어나오듯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금세 출중한 인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서로 얼굴을 보고 공감하고 정서를 나누는 일은 지식을 주고 받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일 수 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청춘의 시대에 집에서 칩거하듯 보낸 젊은이들이 앞길을 잘 헤쳐 갈 수 있도록 좀 더 살갑게 살펴야 할 일이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젊은 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퍼 주고 베푸는 정책보다는 이들의 마음을 살펴 공감하면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社 說

광주·전남 현안사업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확보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광주 시장과 전남 도지사도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누락된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예산은 통상 각 부처에서 올린 것을 기획재정부가 조율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삭감과 증액 과정을 거친 뒤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정부 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위의 예결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상임위 판단이 존중되기는 하지만 필요할 경우 예결위에서 사업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결정이 이뤄진다.

물론 내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몇 차례 있겠지만 재난지원 같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 심사가 사실상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예산 '이삭줍기'에 나서는 이유다.

사실 광주시가 증액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예산안은 56건에 1827억 원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다. 국가 고자기장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비 10억 원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용역비 80억 원, 광주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비 70억 원 등이다. 전남도가 요구하는 예산 역시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 용역비 5억 원,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건설 45억 원 등으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들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 관련 연구시설을 짓기 위한 종잣돈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고자기장이나 전남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지으려면 우선 용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의 명분을 쌓고 계속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그런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위한 막바지 예산 확보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거대주의와 환경 파괴

김 원 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무릇 형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인 줄 알면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하였다.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건 고뇌로부터의 해탈일 뿐 아니라 바로 지구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차적 처방이며 궁극적 해법이기도 하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취급한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은 자연을 훼손하여 인공의 힘을 과시하고 욕구를 극대화하여 왔다. 가능한 많은 영역을 자기의 소유로 하고, 넓고 높은 구조물로써 인간의 능력을 과시해 왔다.

몰락한 문화들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모두 불가사의라 할 수 있는 거대한 것들이다. 고대 이집트 문화가 남긴 피라미드가 그렇고,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그렇고, 로마의 콜로세움 극장이 그렇다. 모두가 당시의 영화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당시 제왕들의 거대주의 환상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민중의 고통과 물자의 낭비가 어떠했을까. 10만 명의 농민이 매년 3개월씩 동원되어 20년이 걸려서 완성했다는 피라미드의 건설 과정. 인류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토목공사라 불리는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데 동원된 농민들의 고초. 5만 명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원형극장을 세우기 위해 동원된 노예들의 희생. 그리고 그 원형투기장 안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살육전. 이 모두가 거대주의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환상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유산들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치의 뒤돌아봄도 없이 힘이 미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탐하여 대단한 성취인 양 자랑해 왔다. 거대한 시설물은 시설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의 문제뿐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드는 에너지의 소비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일에 더 높고 더 큰 시설물들을 조성하다 보면 앞다투어 자원을 축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헤아림 없이 대형화를 향해 줄달음하는 거대주의의 환상에 젖어 있다면 공멸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제쳐 두고라도 서울 최고층 빌딩의 하루 전기 소모량이 강원도 전 주민의 일일 전기 사용량보다 많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시골 관광객 유치하여 매연에 가득 찬 서울 풍경을 전망하고, 바닷속 물고기들을 억지로 잡아다 희귀 어종이라며 구경시키고, 각종 수입 상품과 사치성 상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고 화석연료를 태워 지구를 오염시킨다. 또 위험천만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에만 해도 이와 비슷한 건물들이 여러 곳에 있고 이제는 대형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대형 매장을 건설한다. 가게도 슈퍼라는 말은 이미 사라졌고 대형 마트, 창고형 마트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TV도 냉장고도 그리고 아파트도 승용차도 대형을 희망한다. 대형이 가져오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헤아림도 없이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성직자들 대부분이 물량주의를 현 사회의 문제점이라 지적하면서도 동일한 조사에서 대형 건물을 갖고 싶다는 희망은 70%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량주의를 병폐로 보면서도 대형 건물을 선호하고 동양 최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망치 소리와 중장비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고 자원을 파괴하고 헌공이나 시줏돈을 축내는 일이 벌어지는 이중성은 성직자들마저도 거대주의의 환상에 젖어 있다는 실증이다.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천지만물을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다시 쓰는' 알뜰함이 없다면 지구는 생명의 터전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육체적 생존을 위해 소비를 최소화하는 일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착각이나 세계 제일의 환상에서 벗어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다. 종교마저 '대형 건물'이나 '동양 최대'를 꿈꾼다면 사람들은 허망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학교 집단 감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광주 34명과 전남 40명 등 모두 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6일엔 70명(광주 34, 전남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 합산 이틀 연속 70명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292명 늘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약 1년10개월, 정확히는 668일 만의 최다 기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발 집단 감염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16일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튿날까지 총 23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에서는 지난 16일 이후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6명 등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당국과 학교의 각별한 관리로 무사히 수능을 치러내긴 했지만, 다시 방역의 고삐를 쥐어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 자칫 수능 이후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이동 인구가 증가해 자칫 학교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방역 취약 지대다. 학교 당국은 수능 후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해 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가족 확산을 막아야 한다. 학생들 역시 수험의 압박에서 벗어났어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인 방역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다시 고통스러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

기 고

헬기 안전 운항을 위한 상생 협력

정 중 기
영암산림항공관리소장

산림청 소속 기관인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현재 대형 헬기(KA-32) 두 대와 소형 헬기(AS350) 두 대 등 산불 진화 헬기 네 대를 가동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산불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헬기 등을 이용하여 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최우선 과제는 급변하는 기상 조건 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어떻게 항공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마무리된 후 우리 관리소 소속 헬기 조종사 일곱 명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중 "헬기 비행 임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조종사들은 "바다를 비행하는 해상 비행이 제일 부담된다며, 그 이유는 바다 안개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연안 바다와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다 안개는 비행 고도가 낮은 헬기 운항에 많은 지장을 준다.

한 예로 2015년 3월 신안군 가거도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가 출동했다. 가거도항 헬리포트에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착륙 도중 추락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기상 조건이 조종사의 비행 착시 현상과 맞물려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Risk Factors)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관할 구역에는 전라남도 서남해안의 2118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섬이 있다. 섬 지역 특성상 산불 발생 시 인력과 장비 이동이 어려워 헬기에 의한 산불 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신안군을 비롯해 전남 서·남해안 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3건으로 이 중 헬기가 투입된 산불 진화는 12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였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자료(2010~2019)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준사고 포함) 발생 건수는 총 174건인데, 그중 헬기 사고 건수는 27건(16%)이었다. 헬기 사고 원인은 크게 조종 과실(62%)과 악기상(14%) 등으로 나뉘지만 조금 더 면밀히 자료를 분석해 보면 조종 과실 중 고압선 충돌 및 물 위에서의 착시 현상 등 환경적 요인과 맞물린 경우가 46%를 차지하였다.

지난 8월부터 기상청에서 해무 정보 통합 서비스를 통해 해양 안전에 필수적인 해무에 대한 관측 정보, 위성 영상, 예측 정보, 폐쇄회로TV(CCTV) 정지 영상 등 전국 해무 실황을 한 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산불 진화 헬기를 이용해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관할 구역 내 해무의 실시간 정보는 비행 안전에 매우 유용하다.

해무로 인한 비행 착시 현상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 차원에서 목포에 위치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관리소도 다도해 국립공원 내 설치된 총 아홉 대의 산불 감시 카메라 실시간 영상 및 자동기상 관측장비(AWS)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비행 임무 전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관측 정보 이외에 비행 중에도 조종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기상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변화하는 바다의 위험 기상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비행 여건이 조성되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항공본부를 중심으로 항공안전 위험도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無 等 鼓

프레임 전쟁

편집을 하면서 정치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면, 쉽게 납득되지 않아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게 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까? 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할까?

문제는 '프레임'에 있다. 프레임(frame)이란 '틀'이나 '뼈대'란 뜻인데, 창문이나 액자처럼 특정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한다. 결국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프레임을 통해 현상을 바라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다.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한다.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프레임을 걸어야 표를 얻을지 궁리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인 조지 레이코프(인지언어학자,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던진 뒤 수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릴수록 오히려 코끼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레이코프는 학생들이 '프레임의 덫'에 갇혔다고 표현한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를 사기꾼으로 인식했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안철수가 몇 번 외치는 순간, 그에게 '이명박(MB)의 아바타'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다.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는 다양한 사안에서 프레임으로 대립했다. '민주 대 독재' '평화 대 냉전' '서민 대 부자' '유능 대 무능' '친일 대 종북'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프레임은 특히 시대정신과 어우러지며 대중의 욕망과 부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민주당 이재명은 '능력'을, 국민의힘 윤석열은 '공정'을 내세우며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잊지 말자. 프레임은 후보의 가면일 뿐, 진짜 얼굴은 정책에 있다는 것을.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